

5·31지방선거 D-50

■ 각당 공천작업 박차

광주·전남기초장 우리 9·민주 18곳 확정

우리당 북구청장 후보 이형석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정종득
광양시장 후보 이성웅
강진군수 후보 황주홍
장흥군수 후보 김 성
해남군수 후보 박희현
구례군수 후보 전경태



보 가운데 현재까지 무안(서암석), 완도(김종식), 고흥(진종근), 고성(고현석), 담양(최영식), 신안(김수용) 등 6개 지역 군수후보를 확정했다. 전남도당은 또한 7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남도의원 후보로 고흥 제2선거구에 유재우, 남북교류협회 전남공동대표, 양양 2선거구에는 구상규씨, 무안 1선거구는 박석면 현 도의원, 여수 1선거구는 여인숙 전국이야기재장 중앙회장, 여수 2선거구는 김점유 전남도당 상무위원을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다.

◇민주당=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16차 전체 회의'를 열어 목포시장 후보에 여론조사 결과 61.35%를 획득한 정종득 현 시장을 선정하는 등 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주기로 확정했다. 공특위는 이날 광양시장 후보에 이성웅 현 시장(54.7%), 강진군수 후보에 황주홍 현 군수(61.1%), 장흥군수 후보에 김 성 현 도의원(53.6%), 해남군수 후보에 박희현 현 군수(23.15%)를 각각 확정했다. 구례군수에는 전 경태 현 군수를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남 22개 시·군 단



제16차 전체 회의에서 6개 지역 군수 후보로 확정된 박희현 현 도의원과 전경태 현 도의원.

체장 후보 가운데 15곳을 확정했으며, 광주는 5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광주 1선거구는 김점유 전남도당 상무위원을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다. 광특위는 전남도의원 후보로 목포 제1선거구는 이호균 전남도당 부위원장, 광양 1선거구는 남기호 전 광양시의회 의장, 2선거구는 김재무 현 도의원, 강진 1선거구는 황호용 현 도의원, 2선거구는 이종현 현 도의원, 영암 1선거구는 강우원 현 도의원, 장흥 1선거구는 김점유 현 도의원, 2선거구는 이민우 장흥지역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해남 1선거구는 김석원 현 도의원을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도의원의 경우 46곳(지역구) 가운데 31곳의 후보를 선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록기자 tuim@/박지경기자 jkpark@

5·31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8일 치러진 광주 북구청장 경선에서 이형석 전 광주시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광주시당은 이날 북구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기간당원·일반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직접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한 결과, 이 전 시의원이 44.99%를 얻어 35.30%를 얻는 그친 김용익 전 시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광주 5개 구청장 후보 가운데 남구와 서구를 제외한 3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22명의 시장·군수 후

민주 '경선 이의신청' 20여건 처리결과 주목

민주당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이하 재심특위)의 심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

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재심특위는 오는 14일까지는 20여건에 달하는 이의신청 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공특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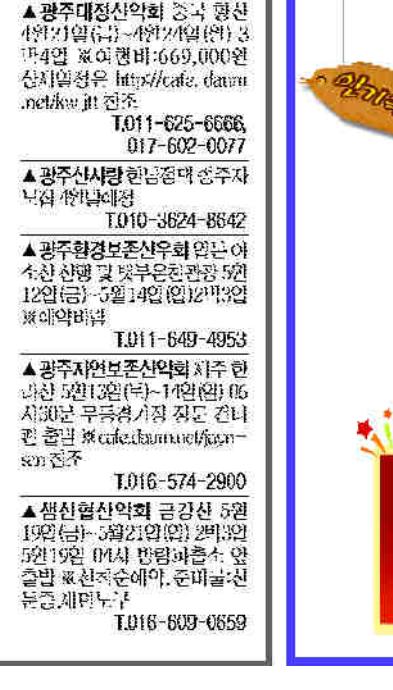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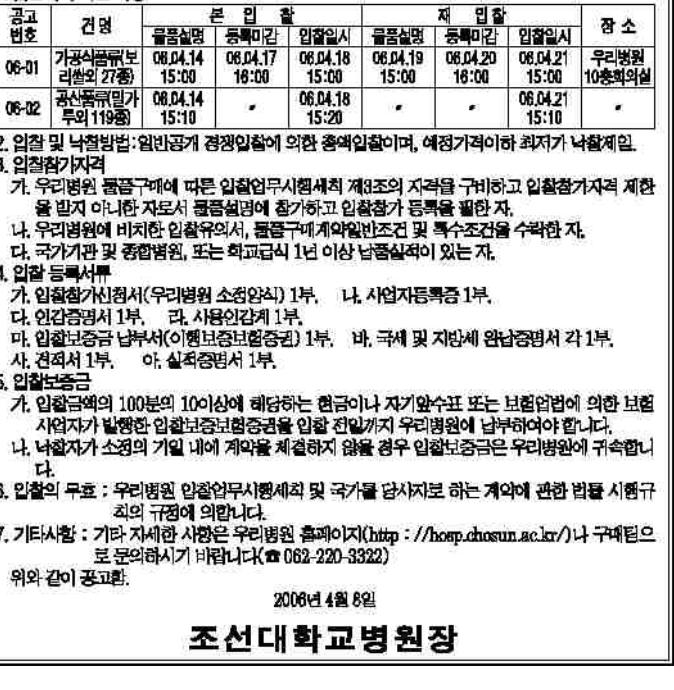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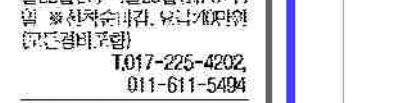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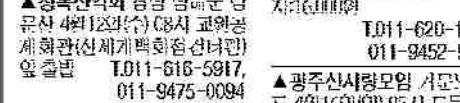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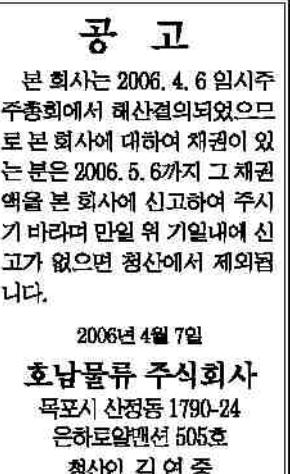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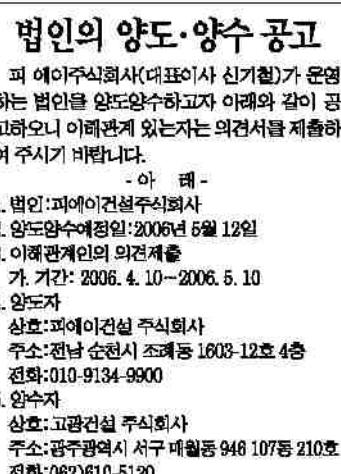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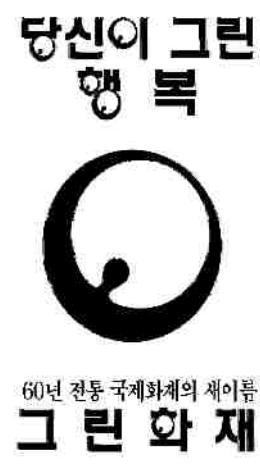
민주당 재심특위 위원장인 조재환

사무총장은 9일 "현재까지 3차례 재심특위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온 지역은 없다"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해 그 결과를 곧바로 공특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나주 등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재심특위가 '여론조사 재실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반발이 심한 광주 서구 및 북구청장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재심특위가 중앙당의 결정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재심특위 심의 결과와 이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아야 전남 2~3개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록기자 tuim@kwangju.co.kr



與 전남지사 경선레이스 본격화

서범석·송하성 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공약 제시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9일 서범석, 송하성 예비후보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두 후보는 오는 12~13일 기간당원 (30%)과 일반당원(20%), 주민 (50%) 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공정경선 서약식을 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서 예비후보는 "이번 도지사 선거는 향후 호남 운명 100년을 가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30여년 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주락한 전남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CEO형 도백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악한 전남 경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전남지사에 당선되면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임의 토대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또 ▲경제와 복지가 강한 전남 실현 ▲인재 양성으로 교육입도 전남 실현 ▲지속 가능한 개



열린우리당 서범석(오른쪽)·송하성(왼쪽)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광주 그랑프리호텔에서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한 경선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발로 청정 환경 보존과 관광 전남 실현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낸 송 예비후보는 "지금 전남은 경제를 일으켜 사립이 모이는 땅, 자식들이 이 남아 살만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제지도자론'을 역설했다.

송 예비후보는 특히 "모든 출마자들이 이번 선거 만큼은 개개인의 출세와 영달이 아닌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 정보와 조직, 인력을 공유하는 가칭 '합동참모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 전남 건설 ▲서울, 도쿄, 오사카, LA 등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 등을 통해 농가 제고 ▲서남권 개발과 동북아 블루 중심 광역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신현구씨 '민주 탈당 무소속 출마'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온 민주당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0일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신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14년 간 목 담았던 민주당과 결별을 고하는 진솔한 심정을 밝혔고 "민주당이 몇몇 개인의 사향으로 전락했다"며 당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與 시당 여성위 선거승리 전진대회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윤

정)는 지난 7일 오후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당원 및 31명의 여성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여성위원회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강기정 국회의원이 선거전략에 대해 특강을 했다.

한나라 전남도당 분과위 발대식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재순)은 지난 7일 당시에서 홍보위원회·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윤리위원회 등 각 분과별 위원회 임명장과 수여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발대식 직후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당세 확장을 통한 득표율 제고와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

